

2008년 9. 10월호 | 제 41호

# 독립정신



홍범도 장군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망향가

작자 미상

적막한 가을 강산 야월삼경에  
슬피우는 두견새야 울지를 마라  
만리타국 그리워서 잠 못자노라  
너로하여 고국생각 더욱 간절타

막막한 시베리아 넓은 천지에  
동에 갔다 서에 변쩍 이내 신세는  
물 위의 부평처럼 정처 없구나  
동천이여 다시한번 굽어보소서

압록강 건너편 백두산 아래  
우리 부모 형제동포 거기 있으니  
여기서 거기가 몇 리나 되는가  
슬프다 우리 부모형제들이여

해외에 널리 있는 우리 동포여  
화려강산 잊지말고 낙심 마소서  
울음이 변하여 웃음 필 때까지  
잔인한 이치로 되어 있으리

▶ 위 노래는 1920년대 전라남도 완도군 작은 섬인 소안도에서 널리 불리어졌던 노래다. 뒷날 1989년 동덕여대 이균영 교수에 의해 “해방의 땅 소안도” 논문으로 소안도의 독립운동사가 소상하게 밝혀진 바 있지만, 당시 1920년대 4,000여명 주민 중 800명의 주민들이 불령선인으로 몰려 심한 고초를 받기도 했던 슬픈 땅이기도 하다. 3.1운동 직후 1920년 4월 소안도에서 자생조직으로 탄생한 ‘배달청년회’는 적국 일본은 물론 만주에까지 항일조직을 구축하였다 하니, 소안도의 항일독립운동을 감히 헤아려볼 뿐이다. 1989년 당시 70이 넘는 소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메이데이’가, ‘옥중가’, ‘망향가’를 거침없이 부르면서 ‘땃불이기를 주민 중 한사람이라도 감옥에 갇히면, 감옥의 그 사람을 생각하여 한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청했다는 회고가 우리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이런 정신 속에서 소안도의 해방정신이 굳게 가열차 갔을 것이다.

해설 : 홍일선 (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2

권두언\_ 건국 60주년 결코 안 된다 | 이이화

05

이달의 독립운동가\_ 봉오동의 영웅 여천 홍범도 장군

11

특집\_ 다시 건국절을 생각한다

- 건국절' 이 위험한 7가지이유 | 김삼웅
- 건국절 추진은 헌법에 위배 | 강창일
-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다
- 대한민국 임시헌법

25

화보\_ 독립정신 답사단 제4기 활동사진

33

답사 일지\_ 제4기 「독립정신」 답사단 일지 | 김태균

37

답사 기행문\_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 그 고난의 시대에 동참하다 | 서홍관

41

독립정신 이모저모



표지인물 | 홍범도 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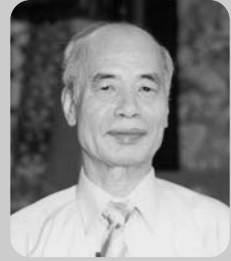
발행인 | 김지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강창일, 박노승, 반병률, 손정진, 산주백, 이두업, 이재승, 이찬희

편집·디자인 | 동방기획

# 건국 60주년 결코 안 된다



이이화 | 역사학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 역사와 사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 그 중에 63회 광복절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건국 60주년을 전면으로 내세워 대한민국 정통성을 왜곡하는 처사를 보고 그 역사의식이 천박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작업을 진행시키는 배경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지, 건국과 정부수립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 보기로 한다.

## 건국과 정부수립을 명확히 구분해야

이른바 '뉴 라이트' 들은 그 동안 좌파 정권 10년을 공격해 왔고 친북 좌파들을 매도해 왔다. 이것은 사실 왜곡이었다. 대한민국에는 좌파 정권 또는 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친북좌파, 그리고 김

정일 추종세력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만 냉전을 걷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할 뿐이다. 평양에 다녀왔다고 해서, 구호물품을 조금 보냈다고 해서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받치는 정치세력들은 극우 논리를 전개하는 일부 언론인과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과 이른바 '뉴 라이트' 들이 전개하는 허황된 주장에 경도되어 정권을 잡는 데 이용하였다. 그들 논리와 주장 속에 가장 황당한 부분이 역사왜곡이다. 다시 말해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수립한 건국의 아버지, 김구는 남북협상을 추구한 건국의 방해자, 친일파와 일본은 식민지 근대화의 공헌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승만을 띄우는 작업이 곧 '건국 60주년' 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승만

을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작업은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앞장서 왔다. 이 학자들은 일본 우파 학자들이 퍼온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뒤 공장과 학교를 짓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근대화 대열에 합류시켰다는 이론에 동조하여 왔다. 이 학자들은 처음에는 일본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받았고 후에는 삼성 등 재벌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으며 친일파 시주를 두었던 일부 보수언론의 동조를 얻어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추구하면서 극단적 수법으로 반공을 내걸고 친일파와 지주 출신들을 정부의 요로에 등장시켰다. 그 과정에서 독립투쟁세력들을 소외시키거나 압제하였고 협상파 등 중도파들을 매도하였다. 김구, 김규식 등 협상파들은 민족주의 우파였으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탓에 이승만의 극우 정권과 반대노선을 걸었다. 따라서 이승만을 옹호하면 친일파와 지주세력을 제외하고 남북협상파와 독립투쟁세력을 모조리 역사의 대열에서 폐기처분 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면 '건국' 과 '정부수립' 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는 수 천 년 역사를 이어온 국가이다. 단군을 국조로 만들어 개천절을 건국절로 기념해 왔다. 중간 중간에 몇 차례 역성혁명을 통해 왕조가 교체되면

서 그 정통성을 계승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건국의 역사적 배경은 민족국가 계승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왕조는 오늘날의 정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1공화국은 새정부 탄생 의미

1919년에 공화제를 표방하고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받들었으나 그 정통성은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이다. 대한제국은 이씨 왕조의 계통을 이었다. '대한' 이란 국명은 바로 이런 의미를 지녔다. 임시정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제1공화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즉 제1공화국의 헌법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분명하게 그 정통성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제1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수립은 새 정부의 탄생이지 새 국가의 탄생이 아니다. 제1공화국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가가 아니다. 프랑스는 오랜 왕국이었는데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한 뒤 프랑스 혁명 발발일을 국가경축절로 삼았지 공화국 선포일을 건국절로 삼지 않았다. 지난 왕조와 새 국민국가를 구별한 것이다.

한편 국가의 존재요건인 인민 주권 영토를 확보하지 못해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 이렇게 되면 식민지 시기 발생한 세계 모든 망명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케 된다. 일제 강점 35



년은 옛 영토 안에서는 분명히 주권을 빼앗긴 공백상태였다. 하지만 그 역사마저 공백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역사의 한 주체가 독립투쟁이었고 그 독립투쟁의 상징인 임시정부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공간에서도 이런 역사적 의미를 결코 배제하지 않았다.

### ‘광복’ 이후의 ‘건국’은 앞뒤 맞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규정한다면 그 3년 전에 발생한 광복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미군정 3년을 정부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 한다면 1945년의 광복, 1948년의 정부수립이 온전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또 북한을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두는 데도 아무런 결함이 없을 것이다.

현재 이른바 ‘건국절’ 행사가 이명박 정부의 주도로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물량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전국 곳곳에 독재시기에 보이던 구호들이 내걸려 있다. 이를 추진하는 주체들은 그 정당성 또는 역사적 의의를, 관계 인사를 모아 공청회를 열어 여러 의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리해 대한광복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유관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언론과 시민단체, 역사연구 단체의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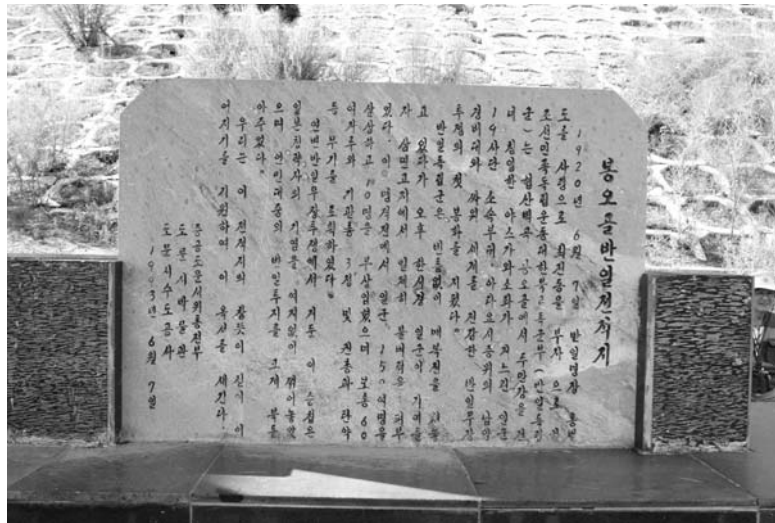
여론이 끓고 있는데도 못들은 체하고 있다. 공공 언론들도 혼란스러워 ‘정부 수립 60년’ 또는 ‘건국 60년’을 번갈아 쓰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굳이 이를 추진하는 의도는 간단해 보인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끌어안고 반공을 표방해 수립한 단독정부를 찬양하므로 북한을 우리 역사에서 배제하여 평화통일론을 억제하고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독립투쟁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또 하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민족사적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곧 이승만 정권의 역사적 존재 의의를 빌어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 조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식민지 역사의 청산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해 ‘건국 60년’ 행사를 중지해야 한다. ‘정부수립 60년’ 이라고 하여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며 가장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다. @

# 봉오동의 영웅 여천汝千 흥범도 장군



▲ 봉오동 전적비

흥범도장군이 의병 활동을 시작하게 된 최초의 계기는 1907년 9월 3일 일제가 공포한 ‘총포급화약류단속법(銃砲及火藥類團束法)’의 졸속한 시행에 있었다. ‘총포 및 화약류를 판매하는 자는 관찰사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는 법령은 군대해산에 뒤이어 모든 국민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 무력저항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흥범도 장군은 안산사포계의 동료들과 함께 일제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즉각 항일의병을 일으켰다. 흥범도 장군의 인솔하에 약 70여 명

의 산포수들은 머리에 혁관(革冠)을 쓰고 1907년 11월 15일 북청군 안평사(安坪社) 엄방동(嚴方洞)에서 회집하여 항일 의병전에 나설 것을 천명하였다. 그 이튿날 거사의 성공을 비는 혈제(血祭)를 지내고, 일진회 회원으로 친일파인 안산(安山)면장 주도익(朱道翼)을 총살하고, 계속해서 인근의 부일배들을 소탕하였고 이로써 흥범도장군은 항일독립운동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후 일생 동안 항일무력전선에 온갖 정력을 쏟았던 것이다. 70여 명의 산포수를 근간으로 봉기한 흥범도 장



▲ 작전중의 홍범도 장군

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거의 초기에 7지대로 나뉘어 십장제(什長制)로 편제되어 있던 의병부대를 이때에 와서는 구한국군의 편제를 모방해서 개편하였다.

### 연승으로 이름 날린 홍범도 부대

1907년 11월 22일 홍범도 장군의 의병들은 북청 후치령(厚峙嶺)에서 매복하였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회수해 가던 일군 무기수송대를 섬멸시켜 버렸다. 이를 이어 홍범도 장군의 의병은 역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갑산으로부터 북청으로 향하던 우편마차 호위 일군을 공격, 전멸시켰으며 그 다음 날에도 홍범도 장군의 의병은 후치령에 잠복, 북청에서 혜산진으로 향하던 일군들을 전멸시키고 무기를 노획하였다. 이와 같은 의병들의 잇다른 승리에 놀란 일군 북청수비대는 궁부(宮部) 대위의 지휘하에 2개 소대 52명을 후

군의 의병부대는 점차 광산노동자, 해산군인, 화전민, 토막민(土幕民) 등의 의병지원자를 받아들여 이듬해에는 1천여 명에 달하는 대부

치령으로 급파, 홍범도장군의 의병을 공격케 하였다. 그러나 홍범도장군의 의병은 이를 알고 11월 25일 후치령에서 잠복, 대기하고 있다가 역시 유리한 지형에서 유격전으로 이들을 격퇴시켜 승리를 거두었다. 후치령 전투를 시발로 홍범도 의병부대는 삼수, 갑산, 북청 등지에서 협산준령을 타며 유격전을 펼쳐 이들을 추격해 오는 일군토벌대를 맞아 연전연승을 거두어 점차 그 명성을 더해 갔다.

### 일부 의병의 귀순으로 큰 타격 입어

홍범도 장군의 의병부대는 1908년 3월 차도선(車道善), 태양옥(太陽玉) 등 의병수뇌부가 일제의 회유공작에 말려 수난을 겪게 되었고 홍범도 장군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도선, 태양옥 양인은 '귀순'을 원하던 2백여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1908년 3월 17일 일군에게 '귀순'해 버렸으나 일군들은 무장해제 유예기간 1개월의 약조를 지키기는커녕 '귀순'의병들을 즉각 무장해제시켜 버렸고 이에 저항하던 태양옥은 총살되었고, 차도선 등은 홍범도를 유인할 목적에서 피체, 투옥되었다. 이들의 '귀순'은 의병부대의 전력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와 항일전 수행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 무렵 일제는 홍범도 장군을 위협,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의 아내와 아들 용범(龍範) 등 가족을 구류시켜 인질로 삼는 비열하고도 잔인한 짓까지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구국대의를 위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의병부대의 전열을 가다듬기에 바빴고 결국 그의





▲ 홍범도 장군과 그의 가족

가족(부인과 큰아들)은 끝내 일군에게 희생되는 비운을 맞고 말았다. 그 후 불굴의 투지로 의병부대의 재편성에 착수한 홍범도 장군은 1908년 4월

부터 5월 중순까지 삼수, 갑산, 무산, 북청 일대를 몸소 돌아다니면서 아직 의병부대에 가입하지 않은 산포수들과 청년들을 권유하여 의병에 가담시켰다. 그 결과 홍범도 장군의 의병부대는 재편되어 1908년 4월 말에는 5백여 명, 다시 5월 중순에는 650여 명에 달해 새로운 항일전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홍범도 장군은 1908년 4월부터 의병항전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2월 노령 연해주로 근거지를 옮길 때까지 삼수, 갑산, 장진(長津), 북청 등지를 오가며 각

처에서 일군과 조우,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일진회 회원 등을 비롯한 부일주구들을 처단, 민족반역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 홍범도 장군은 한반도 북부지방의 의병항일전을 주도하는 핵심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 일대의 주민들로부터는 열렬한 추앙을 받게 되었다.

### 독립군의 정면 승부처, 봉오동

봉오동 전투는 삼둔자 부근 전투에 이어 전개되었다. 즉 한국군 19사단 인천(安川) 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적 침공 세력과 홍범도(洪範圖)·최진동(崔振東)이 지휘하는 우리 독립군 부대의 정면 대결이었던 것이다.

봉오동은 당시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 군이 주둔하고 각 부대가 연락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 측에서는 이곳을 독립군의 본거지로 보고 기어이 격파하려고 사력을 다하여 대들었다. 고려령(高麗嶺) 방면을 통하여 전진하면서 봉오동에 대한 포

위 공격전을 획책하였다.

두만강 유역 온성(穩城) 대안에 있는, 봉오골로 불리어지는 봉오동(鳳梧洞)은 사면이 야산으로 둘러 싸여 지형이 마치 샷갓을 뒤집어 놓은 것



▲ 홍범도 장군 휘하 독립군



▲ 참모들과 함께 (가운데가 홍범도 장군)

같은 곳이다. 때문에 주위 야산의 고지만 차지하면 동 중에 들어간 적은 독 안에 든 쥐와도 같이 요리하기 쉬운 것이다. 여기서 독립군 측은 우선 공성(空城) 작전을 계획하고, 동 중의 동포 주민들을 일단 다른 곳으로 피난시켰다. 그리고 제1연대를 봉오골 옷 마을 부근에 있는 연병장으로 집합시키고 아래와 같은 작전 명령을 내렸다.

제1중대장 이천오(李千五)는 부하 중대를 거느리고 봉오골 옷 마을 서북단에, 제2중대장 강상모(姜尙模)는 동산에, 제3중대장 강시범(姜時範)은 북산에, 제4중대장 조권식(曹權植)을 서산 남단에, 잠복 대기하게 하며, 연대장 홍범도는 2개 중대를 거느리고 서산 북단에 자리 잡고 전투태세를 엄밀히 하되, 적의 선봉 부대가 아군 포위 중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연대장 홍범도의 발포를 신호로 일제 사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또 연대부 장교 이원(李園)으로는 본부 군사 및 잔여 중대를 영솔하고 서북 산지에서 병원 증강·탄약 보충·군량 공급을 담당하며, 제 2

중대의 제 3소대 제 1분대장 이화일(李化日)은 부하 대원을 나누어 고려령 북쪽 1천 2백 미터 고지와 그 북쪽 마을 앞에 잠복하여 있다가, 적이 오는 것을 기다려 유인하게 하였다. 여기에 다시 사령관 최진동과 부관 안무(安武)는 동북 산상 최고봉 큰 나무 아래서 총지휘를 하게 되니 독립군의 작전 태세는 완벽을 이루었다.

### 독립군의 작전에 완전히 말려든 일본군

중국 영토에 불법 침입하여 속전(速戰)을 서두르는 적 부대는 6월7일 아침 6시 경에, 보병을 선두로, 고려령 서쪽 약 1천 5백 미터 지점에 도달하였는데, 그 서쪽에서 잠복 대기하고 있던 이화일 분대가 양쪽으로 공격하니 적측은 의외의 공격을 받아 당황하게 되었다. 부득이 응전하게 되었지만,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 하에 있었고, 또 상대방의 실정을 모르는 형편이었으므로 허둥지둥 대전한 결과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우군의 구원조차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만 참패를 당하고 퇴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초 독립군의 작전 계획은 이 고려령 부근에서 지연 유도 작전을 펴려던 것이었는데, 적측이 의외로 겁을 먹고 당황한 관계로 하여, 생각지 않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일시 후퇴하여 대열을 수습한 적군은 끈질기게도 다시 전진하여 그날 정오 경에 봉오동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적측은 독립군의 작전 계획 그대로 완전히 말려들었다. 봉오동 옷 마을에 이르러도 독립군 측의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 흥범도 장군과 엄인섭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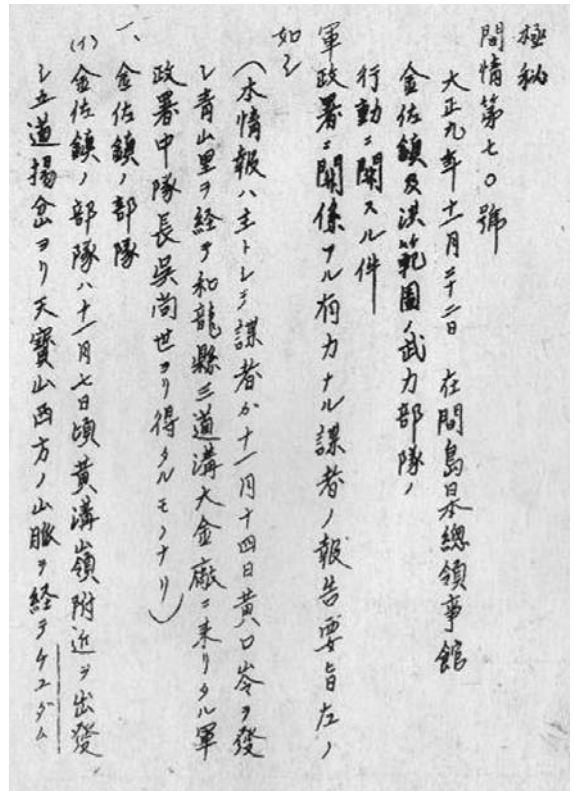
적군은 선봉 부대의 뒤를 따라 주력 부대까지도, 싯갓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봉오동 안으로 들어 오게 되었다.

여기서 연대장 흥범도의 공격 명령이 내렸다. 1발의 신호 총성에 따라 독립군은 3면으로 포위 공격을 개시하였다. 동중학교를 중심으로 집결하였던 적군은 또 한 번 당황하였다. 총성이 나는 곳을 향하여 응사하였다. 그러나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1발 필중(必中)의 사격을 퍼붓는 독립군의 공격과 허겁지겁 응사하는 적군의 방어전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적 지휘관 안천(安川)은 부하의 신곡(神谷)중대·중서(中西) 소대 등의 병령을 앞에 세워 대전하고, 기관총대와 예비진의 삼(森) 중대까지 내세워, 필사의 대결을 하여 보았지만 사상자만 증가하니 혼란 도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지리적 요건을 백분 활용한 완벽한 승리

독립군의 제 2중대장 강상모는 부하 군사를 지휘하여 과감하게 적을 추격, 적군 1백여 명을 사

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멀리서 적 응원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는, 일부의 병력을 잠복시킨 다음 퇴각하고, 적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려 잠복 부대가 약간의 사격을 가하다가 가만히 빠져 나다니, 양쪽으로 나오던 적군끼리 혼전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 정오 경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에 걸친 봉오골 전투의 결과는 적측의 전사 1백 57명, 중상 2백여 명, 경상 1백여 명인 데에 대하여, 독립군 측에는 전사 4명, 중상 2명의 경미한 손해가 있었던 것이니, 지리적 조건을 잘 이용한 명장의 작전 지휘가 독립군 전투 사



▲ 일제의 김좌진·흥범도 관련 보고서



▲ 봉오동전투 기록화

상의 큰 승리를 가져 왔던 것이다. 패배한 일본군의 잔여 부대는 그날 저녁으로 유원진(柔遠鎭) 대안 공산동(空山洞)으로 집합하여 대열을 수습하였다가 강을 건너 철수하였다.

### 계속되는 전투와 광복의 꿈

그 후 대한독립군은 또 노두구(老頭溝)에서, 일본의 간도 총영사관 경찰대와의 충돌이 있었다. 즉 홍범도가 지휘하는 독립군 1개 중대가 노두구 고개에서 점심을 들며 쉬고 있는 중, 지휘관 홍범도는 망원경으로 적 경찰대가 보리밭 속으로 기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언제나 만전 필승을 기하는 홍범도 지휘관은 장병들을 적당한 장소에 은신시킨 후, 적이 근거리로 들어오기를 기다려 공격 명령을 내렸다. 잠복 대기하고 있던

독립군 부대는 지휘관의 신호 1발에 의하여 일제히 총탄을 퍼부어 적 경찰대 28명 중 22명을 사살하는 전승(全勝)을 거두고, 개가를 올리며 대명구(大明溝) 영생동(永生洞) 중간촌(中間村)으로 들어가 진주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서부 및 용성랍자(雍聲礮子) 국민회와 승례향(崇禮鄕) 거주 동포들의 연합 주최로 봉오동 승전을 축하하는 모임이 성대하게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의군부(義軍府)와 정의군정사(正義軍政司)의 장병들도 초대되어 다 같이 전승을 축하하고 조국 광복을 다짐하였다. ㉞

※ 이 글은 국가보훈처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건국절’ 이 위험한 7가지 이유

김삼웅 | 前 독립기념관장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60돌’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관변학자들과 친일행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언론이 선도하는 형국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세계단방에 이를 선포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기념해왔는데, 왜 느닷없이 ‘건국절’인가, 그 배경이 사뭇 궁금하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헌법정신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선언이다. ‘법통’이란 법의 계통이나 전통을 말한다.

1919년 3·1운동 직후 일제 식민통치를 거부하는 민족 지도자들은 상해임시정부를 비롯하여 국



▲ 지난 5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한성정부, 노령국민회의, 서북간도의 군정부(軍政府), 기타 조선민국임시정부, 신한민국정부 등의 명칭을 가진 몇 갈래의 정부를 조직했다. 이것을 대부분 흡수 통합하여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임시의정원이 개원되고, 이튿날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헌장(헌법)의 제정과 국무위원을 선임하여 정부수립을 보게 되었다.

임시정부 기사록(紀事錄)은 의정원의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 이라고 명시하여, 1919년이 대한민국 원년(元年)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대한민국 기원 89년이 된다.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언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제헌헌법 이래 9차 개헌때까지 불변의 원칙이 되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망명지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봉건왕조의 복벽이나 사회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했고, 이 정신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갑자기 나온 '건국절'

제헌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은 헌법초안 제안 설명에서 "이 헌법안은 대한민국임시헌장과 구미 각국에 있는 모든 헌법을 종합해서 원안이 기초된



것"이라고 밝히고 제1회 제헌국회에서 의장 이승만은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13도 대표가 모여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국회개원 축하에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천명했다. 보수세력이 추종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수립 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채택한 제헌헌법 전문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밝혀, 1948년의 정부수립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독립국가를 '재건'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1919년 수립한 임시정부와 1948년 구성된 제헌국회나 정부수립의 문건 어디에도 건국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렵다.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정부수립에 참여한 분들이 감히 '건국'이라는 용어를 쓸 만큼 역사에 무지하거나 오만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임시정부의 자료에는 가끔 '건국 4천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군의 건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1948년의 정부수립에 '건국'을 붙인다면 단군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일이 된다.

일본은 "황조(皇祖)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건국 2600년 만세(萬世一系)"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단군건국을 신화 또는 무당으로 격하하고, 한국사에서 단군조선을 잘라내어 일본 연대(年代)와 비슷하게 조작했다. 중국은 서북공정에 이어 동북공정으로 한국고대사를

자국의 지방정권에 편입시키려고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는다.

### 우리나라가 60년밖에 안되는 초라한 신생 독립국인가?

이런 참에 정부가 '건국60돌' 행사를 서두른 배경이 궁금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를 '건국60년 밖에 안되는 초라한 신생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고조선시대 이후 고대의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시대, 중세의 고려시대, 근세의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왕조 교체기에 '창업' 또는 '개국'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건국'이란 용어를 함부로 쓰지는 않았다. 고려 이후에는 왕조가 바뀌어도 단군을 국조로 인식해 왔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하여 한 때 국맥이 단절되는 듯 했지만, 의병 - 독립군 - 의열투쟁 -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항일전쟁과 임시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단체의 투쟁으로 국혼과 국맥을 지켜왔다.

세계식민지 역사상 27년 동안 임시정부를 운영하면서 싸운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다. 한 때 국권을 빼앗겼어도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36년 만에 광복을 맞았고 민주공화제의 정부를 수립했다. 반만년의 건국시를 복원한 것이다.

애국선열들은 1910년 8월 29일 일제 병탄을 두고도 망국일이라 하지 않고 국치일이라 불렀다.

국민과 국토와 국사가 살아 있으니 반드시 국권을 회복할 것이므로, 망국이란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던 것이다.

### 1948년의 8·15 정부수립일을 '건국절' 이라 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 우리나라는 100년도 못되는 신생국가가 된다.
- ◆ 임시정부의 존재가 보잘 것 없는 '망명정부' 신세로 전락한다.
- ◆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사이에 존재할 미군정 3년이 한국사에서 떨어져 미국사에 편입될지 모른다.
- ◆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존재를 배제해 버림으로써 분단체제를 영구화하게 된다.
- ◆ 1910년 8월 29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38년을 스스로 국권상실 또 국백단절기로 만

든다.

- ◆ 매국노 친일파의 죄상을 대한민국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 ◆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단군의 건국사를 시작으로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에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왜적 36년 식민통치와 미군정 3년을 극복하고 비록 분단상태이지만, 짧은 기간 경제와 민주발전을 이룩했다. '정부수립 60주년' 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

※ 오마이뉴스 2008년 7월 23일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 55개 단체와 야당 의원 74명 헌법소원 “건국절 추진은 헌법에 위배”

이명박 정부의 건국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7일(목) 대한민국임시정부가념사업회 등 55개 시민사회 단체와 강창일 의원 등 야당 의원 74명이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가 추진하는 건국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더불어 이들은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회가 추진 중인 사업을 위한 여부가 판결 날 때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청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본회는 현 정부의 건국절 추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헌법소원의 대리인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인터뷰했다. 다음은 강창일 의원과의 일문일답.

Q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념사업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반대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건국절 추진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광복절하면 연상되는 것이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음흉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친일세력이 건국영웅이다, 박정희는 산업화 영웅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광복 이후 벌어진, 독립운동가 및 좌파나 민족 중도파를 탄압 암살했던 내용을 망각시키고,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절 인권유린 사건들을 묻어버리고자 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음모인 것이다.

Q 건국절을 애초에 제안했던 단체들은 뉴라이트 계열이다. 이들은 48년 비로소 근대국가가 수립됐으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때문에 일제시대에 이

러한 근대 국가 건립의 초석이 다져진 만큼 식민지 시기도 왜곡해서 해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일제의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은 물론 민족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Q 건국절 추진이 분단을 영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A (건국절 추진 움직임이) 남북 화해 및 통일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Q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점으로 하여 올해를 건국89주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근대국가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점으로 하여 올해를 건국89주년으로 하자는 안도 일면 긍정적이지만 그렇게 하면 1948



▶ 강창일 의원

년이 주권 영토 국민 3요소를 다 갖춘 진정한 건국이라고 반론을 함으로써 논쟁에 휘말리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1919년 4월 11일은 '임시정부수립일'로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로 기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민족국가라는 광의의 국가 개념에서, 차라리 우리나라 건국일은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개천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은 아니다.

Q 명칭표기를 두고 일어난 지금의 논란을 좌파와 우파간의 단순한 이념갈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다른 국가적 사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A 건국절 전환 움직임은 일부 학자가 민간차원에서 주장한다면 역사적 사실 연구나 역사학자가 반론을 제기하고 토론이 가능하겠지만, 정부

나 한나라당이 이를 추인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헌법적 음모이므로 좌우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막아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고, 현재는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A 모쪼록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 최종 심판기관으로서 적절한 해석을 하여 향후 건국절 논의가 중단되기를 기대한다. 건국절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일 청산문제를 비롯한 올바른 과거 청산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나, 일본 식민지배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식민지근대화론 등 경계하고 분쇄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가 되도록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 강창일 의원은 누구?

- 1952년 1월 28일 제주 출생
- 도쿄대학교 대학원 박사
- 제 17대, 18대 국회의원
- 현재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회장

# 대한민국 건국 89주년 학술회의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및 삼균학회 등은 정부에서 8.15를 '건국60년' 기념일로 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때, 이 문저를 그대로 넘기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을 묵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문제에 관한 학술회의를 7월 15일 (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었다.

참석자들은 60년 전 (1948년) 정부수립 당시의 문헌 및 사진 자료를 찾아 보면 어디에도 이를 '건국'으로 표현한 곳이 없으며, 그때 채택한 헌법에도 분명히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립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새로 수립되는 정부가 '민주독립국가로 재건' 되었음을 48년 당시에 선언했기때문에, 금년 8.15를 '국가 재건 60주년'으로 한다면 몰라도 '건국'이라 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날의 주제 발표자로는 독립운동을 전공한 박성수(한국학연구원 명예교수), 한시준(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김영수(성균관대 명예교수) 교수 등이 참가하였다.

박성수 교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다>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우리 선조들은 끝내 일제의 식민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일본 중심의 세계관을 타도하고 단군의 건국을 뿌리로 하는 민족사의 법통과 정기를 목숨걸고 지켰다. 왜 이러한 우리의 역사정신을 하루아침에 버리라 하는가? 민족이란 말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일개 경제학자의 역사이론, 그것도 그 일면만 보고 대한민국의 건국연대는



물론 근현대사 전체를 뜯어고치려 하는가. 건국89년을 건국60년으로 축소하려 하는 친일 반민족적 역사왜곡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우리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6.25의 재발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역사는 신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단국대 역사학과 한시준 교수는 <건국 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건국 60주년설은 첫째, 임시정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둘째,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단절시키는 역사 왜곡이며, 셋째,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할 때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선포식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고 하였다.) 넷째, 제헌헌법과 1987년 개정된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천명하였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논리”라고 지적하였다.

제 3주제 발표자로 나온 김영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정통의식>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현행헌법(제9차 개정헌법)은 그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현 대한민국이 정신적 측면에서나 법적 측면에서나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재천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1919년 이후 27년간 이어온 임시정부헌법은 대한민국의 ‘뿌리 헌법’이고, 광복 이후 현 대한민국 헌법은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고 시작한다. 1919년 9월 11일 상해에서 활동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전문을 싣는다.

# 대한민국 임시헌법

## (대한민국 임시약헌)

### 제 1 장 총강(總綱)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토의 부흥이 완성되기 전에는 국가 부흥운동(광복운동)을 활동적으로 수행한 운동자 전체에게 주권이 있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민은 모두 평등하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가부흥운동(광복운동)을 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임시약헌과 법령을 준수하며, 병역에 복무하며, 조세(租稅)를 납부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한다.

## 제 2 장 의정원(임시국회)

제4조 의정원(임시국회)은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내지(內地) 선거구에서 선거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만약 국가부흥운동에 참가한 자로서 각 해당 선거구에 원적(原籍)을 두고 임시정부의 소재지인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가 있으면, 이들이 각 해당 선거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의정원 의원은 57인으로 하되,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함경도·평안도에서 각 6인과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僑民)에서 6인과 소련에 거주하는 교민에서 각 6인씩, 강원도·황해도 각 도와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에서 각 3인씩을 선출한다.

제6조 대한민국 국민은 만 18세가 되고, 완전한 공민권(公民權)을 가진 자는 선거권이 있으며, 연령이 23세가 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직(公職)에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 의정원 의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8조 의정원의 회의는 매년 10월 중에 임시정부의 소재지에서 자행(自行) 소집 개최되며, 폐회 및 기일은 의정원 자체에서 결정한다.

단 원(院)의 결의와 정부의 요구 또는 총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 의정원은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결정한다. 단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때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0조 의정원은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법안과 국가의 예산 결산을 의결하며, 국무위원회의 주석과 국무위원을 선출하며, 외국에 주재할 사절(使節)의 임면(任免) 및 조약의 체결과 선전강화(宣戰講和)에 동의 하되, 이에는 총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동이 있어야 한다.

단 국무위원회의 주석과 국무위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2회 투표하여도 미결될 때에는 다

수(多數)로써 결정한다.

제11조 의정원이 의결한 법률과 그 밖의 안건들은 정부에서 공포하고 시행한다.

제12조 의정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씩을 선출하며, 제반의 내규를 정한다.

제13조 의정원은 의원의 당선증서를 심사하고, 의원의 자격과 선거에 관하여 의의(疑議)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하여 최고의 판결권이 있다.

제14조 의정원은 국무위원회의 주석 및 국무위원과 주외(駐外)사절의 과실이나 위법 또는 내란·외환 등의 범죄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인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써 심판 또는 면직한다.

제15조 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단 의장이나 의원 5인 이상의 제의가 있거나, 정부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院)의 결의로 비밀히 한다.

제16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원내(院內)의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관리(辦理)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5일 이내의 의원의 청가(淸假)와 방청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허락을 준다.

제17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법률과 심판안일 경우는 5인 이상, 그 밖의 안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연서(連署)로 한다.

제18조 의원이 개회 후 7일까지 당선증서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연속 2주일 결석할 때는, 그 직무는 자연히 해임된다. 의원사직의 청허(聽許) 여부는 원의(院議)로써 정한다.

제19조 의원은 회기 중 원의 허가 없이는 그 자유에 대해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언론과 표결에 관하여는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 의원은 만일 3인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으면 정부나 지정한 국무위원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가 있다. 이에 국무위원은 5일 이내에 말이나 글로써 답변하여야 한다. 만일 답변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질문한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21조 의원의 징계는 세 가지 방법 중의 한 가지로 한다. 즉 발언이나 출석의 정지와 제명(除名)이다.

이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결의로써 한다.

제22조 의장이 위법할 때는 5인 이상의 의원의 제의로 심사를 거쳐 제21조의 표결수로 면직한다.

### 제3장 임시정부

제23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의 주석과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이들에게는 최고의 행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국무위원은 6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24조 국무위원회는 국무를 의결 집행하되, 행정 각 부를 두어 각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각 부의 조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 국무위원회와 행정 각 부는 약헌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표한다. 또한 이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정한다.

제26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a. 국가부흥운동(광복운동) 방략과 건국 방안을 의결한다.
- b. 법률과 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c. 예산과 결산과 예산초과 및 산외(算外)지출안을 의결한다.
- d. 일체의 선전포고(宣戰布告), 강화(講和) 및 조약체결안을 의결한다.
- e. 행정 각 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f.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한다.
- g. 고급 관리와 주외 사절 및 그 밖의 정부 대표를 임면(任免)한다.
- h. 외국 사절을 접수한다.
- i. 임시의정원에 제출할 보고와 제안을 작성한다.

j.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정하며, 행정 각 부의 부서와 직원을 설치한다.

제27조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권은 아래와 같다.

- a.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 b. 국무위원회의에서 주석이 된다.
- c.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 d. 국군을 총감(總監)한다.
- e.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로 법률과 명령을 공포한다.
- f.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 각 부의 명령을 정지한다.
- g. 국무위원회의 결의로 긴급 명령을 발한다.
- h. 국사(國史)를 접수한다.
- i. 정치범을 특사한다.
- j. 국무위원회의 중 가부 동수가 될 때에 표결한다.

단 긴급 명령을 발할 때는 차기(次期)의회의 추인(追認)을 구하여야 하며, 만일 여기서 부결될 때는 즉시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위원회의 주석과 국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후에 재선될 수 있다.

국무위원회 주석이 유고할 때는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 중에서 대리대통령 1인을 호선한다.

제29조 국무위원회의 주석과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과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 국무위원회의 의결은 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31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장 1인을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장리(掌理)한다.

제32조 각 부는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로 정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여기에 다른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33조 각 부에는 부장 1인을 두되 국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4조 국무위원회 주석과 행정 각 부의 부장은 법률의 규정과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주된 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 행정 각 부의 직원은 그 부의 부장의 추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36조 지방행정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고, 자치단체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 법률 및 군법회의의 조직과 그 직무 권한은 특별 법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회계

제38조 조세(租稅) 및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산결산 및 국채와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될 만한 것은 의정원의 의결로 한다. 예산 초과나 예산 외의 지출은 다음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40조 국가의 회계는 회계 감사원에서 검사한다.

## 제5장 보칙(補則)

제41조 이 헌법안의 개정은, 정부나 또는 총의원의 2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제의될 것이며, 총의원 4분의 3의 출석과 출석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42조 이 대한민국헌법안은 대한민국 9년(1927) 4월 11일에 처음 공포되고, 대한민국 22년(1940)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㉞



# 극동 러시아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제4기 「독립정신」 답사단원 78명은 7월 20일 (일) 속초항에서 발대식 거행 후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거쳐 우리 선열의 독립운동지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 하바로프스크 지역을 탐사하고, 이르쿠츠크의 바이칼 호수까지 9박 10일의 대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우리 답사단의 대장정을 화보로 엮었다.



①발대식, 답사의 첫걸음 ②승선하기 전에 모두 화이팅 ③하나라도 놓치면 안된다 ④우리가 타고 온 동춘 페리호 ⑤조 구호는 이렇게~ ⑥드디어 러시아 도착



①승전가를 울리며 힘차게 행진 ②단지동맹비에서 기념촬영 ③선열의 얼을 기리며 묵념 ④이상설 선생 유허비에서 묵념 ⑤선열을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⑥경치 좋은 발해성터에서 3조 ⑦크라스키노 승전탑에서 반병률 교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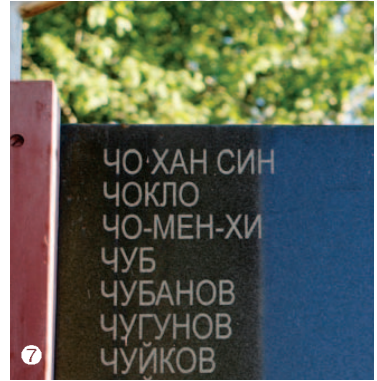
①연해주 신한촌에서 그분들을 기억하며 ②신한촌 기념비 앞에서 ③블라디보스  
각만 전망대에서 ④나는 자랑스런 독립정신 답사단 ⑤금각만 전망대에서 8조  
또 집중







1



7



2

①허버로프스크에서 조명희 선생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②김일택 산드라 사무실 앞에서 기념촬영 ③김일택산드라가 활동하던 사무실 ④아무르 강가에서 사원으로 통하는 계단 앞 ⑤중앙공동묘지 추모관 앞에서 ⑥죽음의 골자기에서 ⑦위에서 세 번째 새겨져 있는 이름 '조명희 선생'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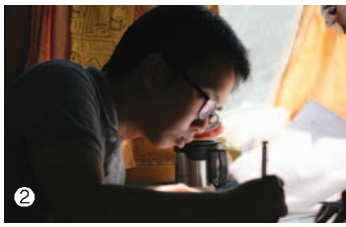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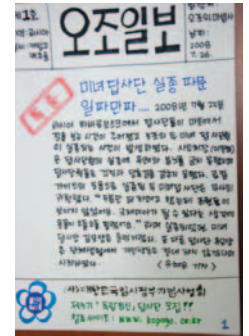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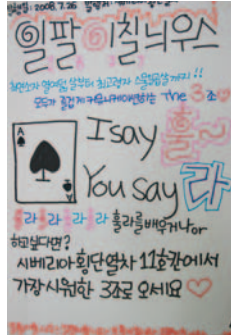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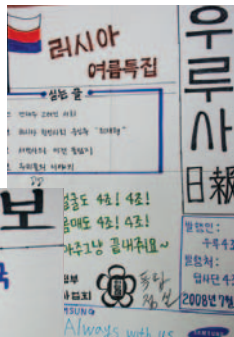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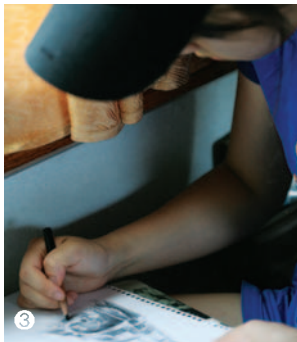


5





①루크크행 열차에 몸을 싣고 ②민들자 독립신문 ③즐거워 독립신문 만들기 ④간초버빔밥 CF 찍기 ⑤짚통가차에서 조별토의 ⑥신나게 노래 부르기 ⑦잠시 정착한 역에서 즐겁게 4초 한 컷





①고려 공신당 참단식을 열었던 건물 앞에서 ②양가타강 광장에서 멋진 한 컷 ③영원의 불꽃 광장에서 ④이르쿠츠크에서 현지인들과 ⑤어디보자~ ⑥플자크 동상





①올로츠키에서 함차게 행진 ②즐거운 우등불 놀이 ③학생단장의 답사 소감 발표 ④모두 하나되는 시간 ⑤「독립정신」 단원의 밤 즐거운 장기자랑 ⑥바다 같이 넓은 바이칼 호수 ⑦바이칼 호수를 가





①해단식 기념 촬영 ②김호일 단장의 단기 반납 ③힘들었던 답사의 훈장, 수료증 ④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며 ⑤방송에 잘 나와야 할텐데 ⑥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며



# 독립정신 답사 일지

- ◆ 답사기간 : 2008년 7월 20일(일)~2008년 7월 29일(화)
- ◆ 답사지역 : 자루비노 - 크라스키노 - 우스리스크 - 블라디보스톡 - 하바로프스크 - 이르쿠츠크
- ◆ 교통수단 : 광화문 - 속초 / 전용버스  
속초 - 자루비노 / 국제 여객선  
블라디보스톡 - 하바로프스크 - 이르쿠츠크 / 시베리아 횡단열차  
이르쿠츠크 - 인천 / 국제선 항공
- ◆ 정 리 : 김태균 (제 4기 답사단원, 한양대학교 사학과 3학년)

## ◆ 1일차 / 7월 20일 일요일\_비 러시아 자루비노항 행 선박 승선

09:40 비가 많이 와서 집결하여 인원 파악 후 팀별로 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속초로 바로 출발. 버스에 짐을 싣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립정신」을 발휘하여 일사분란하게 출발할 수 있었다.

13:30 속초에 도착. 매운탕으로 점심식사를 해결 후 속초 국제 여객터미널에 도착.

15:00 선상에서 발대식을 하려 하였으나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속초항에서 김호일 단장의 출정사와 단원 대표의 출정선언문 낭독, '독립국가' 합창으로 발대식을 거행했다.

17:00 역시 일기 때문인지 승선시간이 많이 지연됐

다. 결국 오후 5시에 승선하였고 석식을 선내식으로 저녁 6시 20분에 먹고, 저녁 7시에 자루비노를 향해 배가 출항을 하였다.

20:10 선내에 짐을 풀고 선내의 식당에서 김호일 단장의 '임시정부 활동과 러시아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단원소개로 답사첫날을 마무리 하였다.

## ◆ 2일차 / 7월 21일 월요일\_비 자루비노항의 선박

07:00 기상 후 7시 30분부터 아침식사가 제공되었다. 모두들 잠시 후면 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지 입항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11:00 입항 지연으로 선내에서 예정에 없던 점심을

제공했다.

13:00 지도교수인 반병률 교수의 '한.러 관계사'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16:30 입학이 하루 연기되어 선내에서 조별 과제 발표의 시간을 가지고, 오후 5시 30분에 선내에서 저녁을 해결하였다.

19:00 선내에서 저녁을 먹은 후 반병률 교수의 '한.러 관계사' 에 대한 두 번째 특강이 열렸다. 반병률 교수의 특강이 끝나고 의료팀 서홍관 박사의 '731부대의 잔혹성' 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21:00 선상에서 조별 퀴즈대회를 열었다. 사회는 답사 단원 중 이성흠 군이 맡았고 조별로 단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 3일차 / 7월 22일 화요일\_ 흐림 자루비노 - 크라스키노 - 우스리스크

10:20 자루비노 입학 후 입국수속을 밟고 크라스키노 전망대로 이동했다.

13:50 크라스키노 전망대에서 단지동맹 기념비로 이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과 김호일 단장, 학생단장 박미리내의 현화식과 김호일 단장의 강의가 있었다.

15:30 점심식사 후 우스리스크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신히 마을에 도착. 일정에 밀려 대략적인 위치와 설명만 듣고 곧 다음 행선지로 출발한다.

20:00 우스리스크에 도착 후 이상설 추모비 답사, 그리고 발해성터로 이동. 우리 선조들의 사적지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사실에 안타

까움을 느낀다.

22:40 우스리스크의 게스트하우스 도착. 힘들었던 하루를 마무리지었다.

#### ◆ 4일차 / 7월 23일 수요일\_ 맑음 블라디보스톡 - 시베리아 횡단열차 - 하바로프스크

10:10 연해주 신한촌의 항일운동기념탑 도착. 남·북·재외 동포를 상징하는 세 개의 돌기둥인데, 우리에게 의미가 남다른 이 탑은 담장을 세우고 한 고려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

11:00 극동국립대학 한국어대학 견학. 한국의 고려 함섭 장치혁 회장이 세워 극동대에 기증한 한국어대학은 그의 부친이며 민족주의 사학자로 알려진 장도빈 선생의 뜻을 기린 것이라 한다.

13:30 점심식사 후 블라디보스톡의 금각만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의 탁 트인 풍경과 가이드의 자세한 설명은 답사 단원들에게 의미있는 풍경을 제공했다.

14:35 블라디보스톡역에 도착. 15:45분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하바로프스크를 향해 떠났다.

#### ◆ 5일차 / 7월24일 목요일\_ 맑음 하바로프스크

07:50 열차에서 하차 후 8시 50분에 조명희 생가라고 잘못 알려진 곳에 도착했다. 실제 조명희 선생과는 인연이 없는 장소인데 잘못 알려져 사람들의 왕래를 받고 있다고 한다.

- 10:10 김알렉산드라가 활동하던 사무실을 찾았다. 반병률 교수의 설명과 함께 변하고 있는 사적지를 보는 마음은 씩씩하기만 하다. 하바로프스크 광장에 있는 러시아정교회 건축 및 아무르강 전망대를 찾았다. 아무르강 전망대에서 김호일 단장의 독립운동사의 흐름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반병률 교수의 하바로프스크에서의 독립운동과 고려인 활동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14:40 점심식사 후 중앙시장(러시아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17:25 스탈린 시대에 학살당한 사람을 추모하는 중앙공동묘지에 들렀다. 중앙공동묘지로 이동하는 중에 하바로프스크 포토포인트와 열병합발전소를 둘러 보았다. 중앙공동묘지에서 반병률 교수의 설명을 듣고 도보로 빨치산 희생자 추모 기념탑(죽음의 골짜기)로 이동했다.
- 22:50 3일 동안 못 씻을 답사단원들을 위해 목욕탕을 들린 후 하바로프스크역 앞에 위치한 레닌 광장에 도착해 야경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 00:40 이르쿠츠크행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올랐다.

◆ 6일차 / 7월 25일 금요일\_ 맑음  
시베리아 횡단열차

- 07:00 열차에서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아침식사를 하였다.
- 09:30 단원들이 이번 답사를 가지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독립신문 만들기를 했다.

- 12:30 각 조별로 점심을 돌아가며 해결하고 조사해 온 인물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 14:30 답사단 각 조끼리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어색하던 것도 잠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알아갔다.
- 15:30 저녁을 해결하고, 각 조는 멘토와 대화의 시간을 보내며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 21:30 김보성 단장에게 노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독립군가를 비롯해 스탈카라진 등 러시아 민요와 민중가요 등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열차에서의 힘든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 7일차 / 7월 26일 토요일\_ 맑음  
시베리아 횡단열차

- 07:00 열차에서 간단한 체조로 몸을 풀고 조별로 돌아가면서 아침식사를 하였다.
- 09:30 각 조끼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어제와는 다른 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14:30 전날 진행했던 독립신문 만들기를 완료 했다. 날씨도 덥고 재료도 충분치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 18:30 저녁을 먹은 후 멘토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21:30 어제에 이어 노래 배우기 시간을 가졌다. 답사단원뿐 아니라 현지 러시아 인들도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열차에서의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 8일차 / 7월 27일 일요일\_비  
이르쿠츠크

- 09:50 이르쿠츠크 역에 도착하니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었다. 모두들 역에서 바로 버스로 올라타 양가라강 광장으로 이동했다.
- 12:00 민속수공예품엑스포 견학 후 점심식사를 하였다.
- 15:00 끼류광장에 도착. 영원의 불꽃과 빨치산 기념비, 고려공산당 창단식이 열렸던 곳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 17:20 러시아정교회인 즈나멘스키 수도원에서 미사를 드리고 꼴자크 동상에서 반병률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 20:20 저녁식사 후 올로츠크에 위치한 숙소에서 답사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 9일차 7월 28일 월요일\_맑음  
이르쿠츠크

- 10:50 숙소에서 아침식사 후 딸찌건축박물관 견학을 하였다. 러시아 전통건축물들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14:00 러시아 현지식으로 점심을 먹은 후 바이칼

호수와 바이칼 생태 박물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18:00 독립정신 답사단의 주요일정을 마무리 하는 독립정신 단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조별 장기자랑과 조가제창, 그리고 답사 일정 중 독립신문 만들기과 퀴즈 대회 시상식, 나에게 편지쓰기, 우등불 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 21:10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르쿠츠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 10일차 7월 29일 화요일\_맑음  
이르쿠츠크-인천공항

- 02:10 이르쿠츠크 공항에서 긴 기다림 끝에 인천공항 행 비행기에 탑승, 한국시간으로 오전 6시 10분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 06:40 인천공항에서 답사의 마무리와 이후의 만남을 다짐하는 해단식을 거행 하였다. 낯선 러시아 땅에서 적응하기가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선열들의 얼을 가슴 가득 느끼고 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돌아보면 짧았던 9박10일을 마무리 하면서 조원들 간에 아쉬움을 남긴 채 대장정을 마무리 하였다.



# 러시아지역의 독립운동, 그 고난의 시대에 동참하다



서훈관 | 국립 암센터 의사 시인  
4기 답사 의료담당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부터 이번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 답사에 의료진으로 참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망설였다. 힘든 여정에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게 되면 주변의 의료시설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의료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진은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 발자취를 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 결국 나의 휴가 거의 전부를 털어 넣어 답사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7월 20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답사팀은 평화문에서 출발했다. 태풍 갈매기호가 불어서 풍량이 심상치 않았다. 아무래도 멀미가 걱정이 되어서 속초에서 급하게 멀미약 100인분을 구입하고 발대식이 끝난 후 멀미에 대해서 설명해주

고, 멀미는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단 발생하면 그때 약을 먹어도 늦고,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망망대해 어디에서 배를 내리겠느냐고 강조하였다. 원래 16시간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러시아 자르비노 항구에서의 비협조로 일박을 더 하게 되어 거의 39시간을 배에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에 멀미 예방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배에서 하루가 늘어 작년 만주지역 답사팀을 위해 내가 강의했던 <관동군 731부대와 청년 시인 윤동주의 죽음>이라는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다. 비록 이번 답사와는 무관한 주제였지만 일제의 만행을 인식하고 그 고난의 시대를 다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다.

7월 22일 드디어 자르비노 항구에서 내려서 땅을 디뎠는데, 처음으로 밭을 디딘 러시아 땅이란 괜히 신기해서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이 주변 지역이 바로 우리나라 이주민들이 최초로 정착한 곳

이다. 우리는 크라스키노 승전탑에서 주변을 둘러 보고, 안중근의사의 단지동맹기념비로 향했다. 1909년 3월 연추리에서 열두 명의 독립지사들이 단지동맹을 결성하고 모두 왼손 넷째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 태극기에 혈서로 대한독립이라고 쓰고, 이 사진을 1914년 8월 23일 권업신문에 게재했다고 한다. 안중근은 그 때의 다짐대로 조선 침략의 원흉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그해 10월 20일 처단하였으니 그때의 다짐은 헛되지 않았다. 김호일 단장님은 1998년 이 근처에서 조선인들이 사용하던 솥단지 등 주거 흔적들을 발견하셨다고 하니 새삼스레 주변의 땅에 서려 있는 구한말 한국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이상설선생의 유허비를 찾았다. 그는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위종과 함께 고종의 특사로 파견된 애국지사였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연해주에 머무르면서 성명회, 창의회, 권업회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1917년 3월 2일 48세의 일기로 천추의 한을 품은 채 우수리스크에서 작고하였는데, 서릿발 같은 유언을 남겼다.

“동지들은 합심하여 조국광복을 기필코 이룩하라. 나는 광복을 못보고 이 세상을 떠나니 어찌 고혼인들 조국에 돌아갈 수 있으랴. 내 몸과 유품은 남김없이 불태우고 그 재도 바다에 버리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임종을 지킨 이동녕 등은 그의 유언대로 수이푼 강에 화장하여 그 재를 강물에 뿌렸다. 이제 수이

푼 강가에 세워진 이상설 유허비 앞에 서서 묵념 하면서 우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 선열들의 혼이 잠들어 있는 곳, 연해주

일행은 차를 몰아 발해 성터로 향한다. 가는 도중 환상적인 들판이 나타났다. 도라지꽃과 붉은 토끼꽃과 엉겅퀴, 미나리아재비들이 어울려 이 발해성터는 온통 꽃밭이다. 황홀한 느낌이었다. 발해성은 발해 15부의 하나인 말이 특산물이었던 솔빈부(率賓府)의 소재지로 여겨지고 있다. 러시아는 발해 역사에 관심이 없어 발해성 유적을 제대로 발굴하거나 복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안타까웠다. 연해주는 단순히 독립운동의 발자취 때문만이 아니라 발해로 연결되는 우리 역사의 한 줄기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 재무총장이던 최재형의 집을 찾는다. 최재형은 함경도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우연히 러시아인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은 뒤 사업을 통해 큰 부자가 되었고, 이후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운동을 돕는 데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쳤다. 그러나 최재형은 1920년 러시아 거주 의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침입한 일본군에 의해 불법으로 체포되어 처형당한다. 일본군은 가족들에게 시체도 넘겨주지 않았으니 그들의 만행을 무어라 말할 것인가? 이 사건을 4월 참변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딸들이 아버지에게 피신을 권고하면 그는 “너희들이 일본군의 수법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도망치면 그들은 너희들을 다 잡아가 나의 피신처를 알려고 너희를 고



문할 것이다. 나는 벌써 늙었지만 젊은 너희들은 살아야 해. 차라리 내가 죽어야 해.”하고 기다리다 잡혀 죽었다고 하니 그의 고통과 그 가족들의 슬픔이 가슴 시리게 느껴진다.

###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프스크까지

우리는 우수리스크 지역에서 하루를 자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 1874년 블라디보스톡에는 한인촌 개척리가 만들어지고, 후에 1911년 중반 신한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러시아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작용하여 언론기관과 단체,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한인촌 기념탑이 서 있어서 그 시절을 증언해주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 독립운동의 거점이던 이곳 한인 사회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만행이 벌어졌으니 바로 스탈린에 의한 고려인 강제이주사업이었다.

이제 우리도 블라디보스톡 역에서 강제이주 당하던 그분들이 가던 길을 따라 가지만 우리가 떠나는 것과 그분들이 물 설고 땅 설은 곳으로 기약도 없이 떠나가던 것과 비교가 될 수 있으랴.

이제 기차는 서서히 해안가를 따라 가다가 시베리아 평원으로 들어간다. 중간중간 정차하는 역에서 간이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시베리아 횡단여행의 재미중 하나이다.

7월 24일 아침 7시에 하바로프스크역에 도착했다. 우리는 김유천거리를 거쳐서 조명희 생가를 간다. 사실은 이곳이 조명희 생가가 아니라는 말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언젠가 누가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 돌아가면 조명희 소설을 읽어보리라.

다음 행선지는 우리는 처음 듣는 김알렉산드라가 일하던 곳이다. 김알렉산드라는 조선인으로서 조선인 벌목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통역관으로써 애를 많이 썼다고 한다.

### 이르쿠츠크, 그리고 바이칼

나는 시베리아 열차 속에서 드디어 그동안 보고 들었던 내용을 노트북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나 하나 자료를 보고, 내 부실한 메모를 보고 옮기는 동안에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갔다. 이 기행문은 결국 여행이 끝날 때까지 기록하니 A4용지로 25장의 방대한 분량이 되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멘토의 시간이 있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답사와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우리의 삶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말했다. 과연 우리가 1910년, 20년 30년대에 태어났더라면 무슨 일을 했을 것인지를 생각해볼 자고도 했고, 지금 이런 답사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말해보기도 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대학생들이 이 젊은 날 열혈간의 뜨거운 여행이 소중한 경험으로 남기를 바란다.

7월 27일 아침에 바이칼호가 보인다고 흔들여 깨우길래 나가보니 5시 40분인데 바이칼호가 어슴푸레 여명 속에서 보인다. 그러나 해 뜨는 모습을 보려던 바람과는 달리 구름이 짙어지면서 하늘

이 어두워지더니 급기야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바이칼호는 듣던 대로 바다처럼 넓게 펼쳐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주변 풍경을 보여주는데 물결이 친다.

드디어 열차는 이르쿠츠크에 도착한다. 이곳에 도착해서 우리는 러시아 군인이던 갈란다라쉬빌리의 무덤으로 향한다. 그리고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1920년 당시 독립군의 지휘권을 놓고 이르쿠츠크 파와 상해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1921년 6월 27일 갈란다라쉬빌리는 상해파의 일부인 사할린 의용대의 무장해제를 단행하기로 한다. 이들이 무장해제에 응하지 않자, 공격명령을 내려 제압했다.

나라 잃은 민족은 이렇게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외세에 의존하다가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고려공산당이 창당되었던 음악당으로 향했다. 대학생 시절에 독립운동사를 읽을 때 이르쿠츠크파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이 현장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곳에서 결성된 이르쿠츠크파는 1925년 4월에 조직된 조선공산당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 힘들었던 답사, 그들을 기억하며

공식적인 답사가 끝난 우리는 바이칼 호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하기 전까지 이 광활한 시베리아는 우리와 같은 핏줄이 살던 곳이었다. 우리 민족의 원류는 이곳 우랄 알타이 지역에서 건너온 것이니 이 지역은

우리 민족의 시원(始原)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울로츠크 통나무집에서 그동안 열흘간의 답사여행을 마무리했다. 나는 잠시 주변의 숲속과 강변을 산책했다. 답사기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최재형과 그 딸들, 안중근, 이상설, 김알렉산드라, 지신히 주변의 이름 없는 한인촌의 사람들, 연해주에서 강제이주 당했던 수많은 한인들, 자유시에서 동족들의 총에 죽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 그리고 이번 답사기간을 같이 보내면서 정든 사람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김자동 회장님, 김호일 단장님, 반병을 교수님, 김선현 이사님, 이찬희 처장님 그리고 나와 함께 의료팀을 완벽하게 이루어준 박진영 간호사를 비롯한 답사팀 어른들과 대학생들 모두의 따스한 배려로 즐겁고 유익한 답사가 될 수 있었다. 특히 모두 조심해주어서 큰 병이나 사고를 내지 않아 취약한(?) 의료진의 체면을 세워주신 것은 나에게도 더더욱 감사한 일이었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하는 독립군가의 여운이 지금까지도 귓가에 울린다. ㉞

## ◆ 건국절 논란에 돌로 나뉜 슬픈 광복절

— 8·15 광복절 63주년 기념 국민대회

지난 8월 15일 오전 11시 탑골 공원에서 8.15 광복절 63주년 기념 국민대회가 열렸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유족회, 민족자주연맹,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 여러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같은 시각, 경복궁에서는 정부가 주관한 건국 60년 기념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동안 광복절과 정부수립기념일로 불려왔던 8.15를 이명박 정부가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으로 규정해 올해 광복절이 반쪽짜리 행사가 된 까닭이다. 본회 김지동 회장은 대회사에서 “내년 행사는 건국절이 아닌 광복절 행사가 되어 정부 주최의 국민대회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건국절 규정에 유감을 표했다.

8.15를 두고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의 논란은 행사 한 달여 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7월 3일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60년사를 건국절로 제정하지는 의인을 발의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광복절이 일본과 관련된 국경일이므로 국제화 시대의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러 학회와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냈다. 건국 60년이라는 표현 자체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임을 명시한 현행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1948년 이후의 60년으로 단절시키는 것으로 독립운동의 의미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토론이나 공청회, 여



론 수렴 과정 없이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날 경복궁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에서도 경축사에 나선 이 대통령은 광복 63주년 대신 '건국 60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당일 행사를 주관한 단체들은 대부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지원 없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행보에 정면 비판하는 행사를 주도했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본회 김지동 회장은 이들 단체가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민주주의의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결의를 다지는 참석자들의 표정은 장엄하고 진지했다. 국가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남다른 애국심이 그 표정에 녹아 있었다.

〈정승임 학생 편집위원〉

## ◆ 가을 맞는 독립정신 산악회

오메 단풍 들었네 라며 김영랑 시인이 외마디 탄성으로 알려진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8월 북한산 산행을 마친 '독립정신 산악회'는 가을을 맞아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행 일정을 준비했다. 산행은 9월 27일과 10월 25일 모두 북한산으로 예정되어 있다. 주세영 독립정신 산악회장은 "가을이야말로 북한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계절"이라며 가을 북한산에 대한 기대를 내보였다. 특히나 이번 산행은 지난 7월 극동 러시아 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독립정신 4기 단원들의 합류로 그 의

미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 9월 산행 〉

날짜 및 시간	9월 27일 10시 30분
집합장소	독바위역 1번 출구
산행 코스	독바위역 - 족두리봉 - 향로봉 - 진관사

### 〈 10월 산행 〉

날짜 및 시간	10월 25일 10시 30분
집합장소	불광역 1번 출구
산행 코스	구기자소 - 매표소 - 송가사 갈림길 - 문수사 - 대남문 - 니울봉 - 삼전사 - 진관사

## ◆ 독립정신 4기 단원 여러분,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지난 8월 15일 독립정신 4기 단원 약 20여 명이 답사를 다녀온 후 첫 모임을 가졌다. 4기 후배 단원들의 건강한 귀국을 축하해주기 위해 1,23기의 일부 단원들도 동석한 자리였다.

신촌에 위치한 필름 포럼에 모인 단원들은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라는 독립영화를 단체 관람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가 탄핵되던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였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자리를 옮겨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들은 극동 러시아에서의 추억과 여담으로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불과 며칠 뒤인 23일 4기 단원들은 다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로 1박 2일 일정의 MT를 떠났다. 때마침 열린 '북한강 음악축제'와 더불어 4기 단원들의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참석했던 이성흠 군은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꾸준히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 임정사랑방 개최



「임정사랑방」이 지난 7월 11일 금과 8월 29일 오후 6시 30분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예쁘게 찍는 법'을 주제로 한 7월 임정사랑방은 사진작가 이수철 선생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수철 선생은 오사카 예술대학교 사진학과는 최근 한국사진의 새로운 탐색이라는 기획전시에 참여하는 등 자신만의 이미지를 세상에 알리왔다. 본 강연은 답사를 앞둔 시점에서 4기 신입 답사단이 사진 기본기를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8월 임정사랑방은 본회 김학민 이사장의 '우리 시대의 독립정신'을 주제로 한 강의로 진행됐다. 7-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김학민 이사는 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광복절이 있는 달이었던 만큼 이 시대의 독립정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4기 답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임정사랑방은 올 4월부터 시작된 본회 대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매달 열리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조영빈 학생 편집위원)

### 기념관 건립기금 후원해 주신분들(2008년 2월~2008년 8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채익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0
이학효	30,000						
김진한		30,000					
김중숙						500,000	

### (주)오토 창립 10주년 기념 기부금

동국대학교(임배근)	100,000	대원공작기계	300,000	조이건설(주)	300,000
(주)광진상공	200,000	동아오도모티브	100,000	(주)태림	100,000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500,000	영지산업(주)	200,000	(주)나사로	100,000
경진단전(주)	500,000	(주)영진이앤지	300,000	(주)경림(이득순)	100,000
삼성물산	100,000	(주)혜성	300,000	(주)산스틸	100,000
고원금속공업	300,000	갑을건설	100,000	(주)코스모	100,000
(주)산계진	500,000	승신기전	100,000	경주시 보건소(김미경)	100,000
(주)리프로	100,000	현대 에너지셀	200,000	(주)명보산업	100,000
(주)한국메탈	200,000	한국일처리	200,000	(주)상림화학	100,000
한솔교육	100,000	태화스피들	100,000	대풍연와상사(주)삼한 C1)	100,000
성한정공(주)	100,000	대구교세라물링	200,000	(주)가산 엔지니어링	100,000
(주)도인	500,000	동원기공	200,000	(주)태경테크	100,000
MURATA기계	300,000	유창정밀	500,000	(주)선일 플라스틱	200,000
경복일처리	300,000	대진하이텍(주)	200,000	삼영기업	100,000
남대문 세무서	50,000	두성종합상사	100,000	이영숙	300,000
한국엔티에스 주식회사	100,000	(주)고테크	100,000	에너지텍	100,000
(주)디케이엔지니어링	500,000	진영산업(주)	300,000	경신공업(주)	200,000
(주)두하	200,000	대하산업	100,000	(주)동우	200,000
코텍루비스	200,000	대진정밀	200,000	총합	11,150,000

(주)오토(주 제이)는 창립 10주년 기념 및 예산공장 준공식 행사에서 회환 대신 성금을 본회로 받아, 성금 중 800만원은 예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가나안노인의 집 외 7곳)에 성금으로 기증하였고 남은 후원금은 본회에 기부하였다.

## - 여러분이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 기부금과 회비를 내주신 분들(2008년 6월 1일~8월 31일) ◆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사업장동행생태자연회	10,000	10,000		박은봉	30,000	30,000	30,000	이찬희	30,000	30,000	
공성진	30,000	30,000	30,000	백낙청	10,000	10,000	10,000	이창복	30,000	30,000	30,000
곽태원	30,000	30,000	30,000	방인섭	30,000	30,000	30,000	이학효			5,000
광복회 청년사자회	30,000	10,000		성인재(주)	100,000	100,000	100,000	이항중	30,000	30,000	30,000
김광재	5,000	5,000	5,000	송재웅	30,000	30,000	30,000	이호헌	20,000	20,000	20,000
김동현			20,000	심수진	30,000	30,000	30,000	이화순	30,000	30,000	30,000
김선군	10,000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30,000	인순창	30,000	30,000	30,000
김선현			400,000	안영찬	5,000	5,000	5,000	장봉훈	30,000	30,000	30,000
김영림	30,000	30,000	30,000	양순정	30,000			장은기	20,000	20,000	20,000
김용덕	10,000	10,000	10,000	엄근학	10,000	10,000	10,000	정민기	30,000	30,000	30,000
김원규	10,000	10,000	10,000	염기남	50,000	50,000	10,000	점승임	5,000		5,000
김원유	10,000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50,000	정환기	10,000	10,000	10,000
김위	20,000	20,000	20,000	오은주	20,000	20,000	20,000	조기식	10,000	10,000	10,000
김위현	50,000	50,000	50,000	오정수	10,000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10,000
김지동	100,000	100,000	100,000	우상호		30,000	30,000	조용준	30,000	30,000	30,000
김재철	100,000	100,000		유원목		20,000	20,000	조용환	30,000	30,000	30,000
김재호		500,000		윤경자	30,000	30,000	30,000	조인형	10,000	10,000	10,000
김정욱	30,000	30,000	30,000	윤한옥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30,000
김중숙	10,000	10,000	10,000	이규호	30,000	30,000	30,000	조화환	10,000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20,000	이두업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진영	10,000	10,000	10,000	이병윤			10,000	주철기	30,000	30,000	30,000
김진현	30,000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200,000	주혜숙	20,000	20,000	20,000
김희근	10,000	10,000	10,000	이성배	10,000	10,000	10,000	채익진	10,000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30,000	이석희	100,000	100,000		최인국	10,000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30,000	이신재			30,000	최정식	10,000	10,000	10,000
노동래	30,000	30,000	30,000	이영춘	30,000	30,000	30,000	합세웅	30,000	30,000	30,000
류시경		30,000	90,000	이영후	30,000	30,000	30,000	허석현	5,000	5,000	5,000
민향선	10,000		10,000	이용규			10,000	홍순권	10,000	10,000	1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용국	5,000	5,000	5,000	황용만	5,000	5,000	5,000
박석자			10,000	이정재	50,000	50,000	50,000	◆ 특별 기부금			
박원표	50,000	50,000	50,000	이종락	30,000	30,000	30,000				
박윤정	10,000			이지현	10,000	10,000	10,000	(주)오도 오티오	6,000,000	6,000,000	6,000,000

항일



조명희(1894~1938)



충북 진천에서 몰락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1920년 동경 유학시절 극예술연구회에 참가했으며, 1921년 동우회 순회극단의 일원으로 연극운동을 전개했다

1925년 카프(KAPF :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에 가입하였고 식민지 조선민중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을 그린 <땅속으로> <R군에게> <저기집> <농촌사람들> <동자>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고 단편소설집 <낙동강이 있다>

1928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한 뒤 한인촌 교사로 일하면서 연해주 한인신문과 잡지등에 시와 기고문을 발표했다 1934년 소련작가동맹의 원동지부 간부로 일하는 한편 만주의 항일무장투쟁을 다룬 대하소설 <만주 빨치산>을 집필했다

그러나 집필 중이던 1938년 스탈린의 한인강제이주가 실시되는 와중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총살당하였다 뒤에 복권되었고 러시아 한인문학의 아버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친일

김동인(1900~1951)



창씨명 : 히가시 후미토미(東文二)

1919년 도쿄에서 최초의 문학회동인지 <창조>를 발간했고 귀국 후, <배따라기> <감자> <광염 소나타> 등 단편소설과 <운현궁의 봄> <젊은 그들>과 같은 역사소설을 집필했다.

1939년 성전종군작가의 일원으로 중국을 돌며 일본군을 위문했고 이후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조선문인보국회 등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했다. 그의 친일소설로는 <백마강> (매일신보 1941)과 <성암의 길>(조광 1944)이 있다 <백마강>은 “내선일체의 성지 백제를 배경으로 신체제에 적응하여 역사소설의 신기원을 만들고자” 쓴 소설이고, <성암의 길>은 도쿠카와 막부 시절의 시인이자 양이 근왕론자(攘夷勤王論者)였던 하리가와 센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친황이데올로기를 선전하려는 작품이었다.

이 외에도 <총동원태세로> <반도민중의 황민화> <일장기 물결> 등 친일수필을 다수 발표하여 문필보국에 앞장선 대표적 친일문인이었다







시도때도 없이  
빨개지네...

# 폐경기 증상은 약(藥)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식물성분**  
 폐경기 증상 치료제



폐경기 치료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료전화  
 080) 550-7575  
[www.feraminQ.com](http://www.feraminQ.com)

다음은 실제 40, 50대 폐경기 여성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Q1.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것이 폐경기 증상인가요?**

생리주기가 점점 불규칙해지며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리는 안면홍조, 수시로 땀이 나고 잠들기 곤란하다고 느끼는 발한, 신경이 예민하고 불안해지며 건망증이 심해지고 자주 우울해지는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년 여성이라면 이미 폐경기 증상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Q2. 견딜 만 한데, 굳이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폐경 증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다공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더 큰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참기 보다는 의사처방이나 약국에서 폐경기 치료제 구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폐경기 치료는 좋은 식품이나 운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 석류, 취, 콩, 달맞이꽃 종자유 등으로 만든 건강식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부제품의 경우, 전문가의 상의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경기 치료를 위해서는 효과를 검증받은 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그럼 폐경기 치료약으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폐경기 치료제로는 크게 호르몬제와 식물성 비호르몬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르몬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알려진 후 최근에는 식물성분의 폐경기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혜라민Q는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대표적인 식물인 '승마추출물', '히페리시' 등의 2가지 식물성분이 복합된 약품입니다.

**Q5. 혜라민Q는 효과가 검증된 약인가요?**

혜라민Q는 인사들로 잘 알려진 동국제약에서 나온 폐경기치료제로서 국내 7개 주요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약입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성계대병원, 인혜대병원)

• 반드시 의사 약사의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